

외환리포트

전일동향	결제수요 유입 및 당국 경계심으로 상승 마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■ 전일 달러/원 환율은 1,060원 지지에 대한 당국의 경계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0.7원 상승한 1,060.9원으로 출발했다. 그러나 미국 FOMC 정례회의가 마무리되고 뚜렷한 대외적 변수가 없자 역내 수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는 양상이 나타났고, 장초반 월 말을 맞은 네고 물량이 유입되며 달러화는 1,050원대로 레벨을 낮췄다.

■ 미국 재무부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을 촉구하였다. 이에 현오 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화 절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 3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1,059.1원에 저점을, 1,061.2원에 고점을 기록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계속했고, 결국 전일대비 0.5원 오른 1,060.7원에 거래를 마쳤다.

?

전일 달러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
	1060.90	1061.20	1059.10	1060.70	1059.90
전일 엔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	
	1076.24	1081.24	1073.89	1078.49	
금일 전망	이월 네고물량에도 지속적인 당국 경계로 1,060원대 초중반 전망				

■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전망에 따른 유로/달러 환율 급락으로 4.95원 상승한 역외환율의 영향을 받아 금일 달러/원 환율 역시 4.3원 오른 1,065.0원에 출발하였다. 미국 재무부의 공식입장에도 전일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이 급격한 원화 절상을 대비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환율 추가 하락에 대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.

■ 다만 고점매도를 위한 이월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대기중이어서 금일 달러화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. 금일 발표예정인 중국 PMI확정치를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, 1,06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.

?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055.00 ~ 1069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45.78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95원상승
	■ 美 다우지수 : 15545.75, -73.01p(-0.47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53.835 억달러

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2217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